

열왕기하

- 1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
 들때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
 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3 여호와와 사자가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
 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
 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6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
 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7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
 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8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셀 사람 엘리야로다'
 9 이에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
 라 하셨나이다'
 10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
 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
 인을 사를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오십인을 살렸더라
 11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 오라' 하셨나이다

12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사들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와 그 오십인을 살랐더라
13 왕이 세번째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보낸지라 세째 오
십부장이 홀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구하되 '가도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친구의 종인 이 오십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오십부장과 그 오십
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15 여호와와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
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16 고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만
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
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
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 이년이었더라
18 아하시야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

1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
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벳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벳엘로
내려가니
3 벳엘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
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
라'
4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
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

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와 그의 사심과 당신의 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7 선지자의 생도 오십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8 엘리야가 걸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12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13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걸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서 서서

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걸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靈感)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16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오십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와 그의 신이 저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17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 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오십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18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저에게 돌아오
 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19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
 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
 며 가로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좃
 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
 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
 다
 23 엘리사가 거기서 벳엘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
 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
 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4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저주
 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돌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사십 이명
 을 찢었더라
 25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
 로 돌아왔더라

3

1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십팔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
 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 이년을 치리하니라
 2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의 만든 바알의 주
 상을 제하였음이라
 3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의 털과 수양
 십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6 그 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고하고

7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8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9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칠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데도다'

11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2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지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14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5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6 저가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19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20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1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22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찌기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취므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24 이스라엘 진(陣)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25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라 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땀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26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 찬 군사 칠백을 거느리고 총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27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만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

1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2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이다'
 3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4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5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 오고 그는 부었더니

6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값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8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유하리이다 하였더라

11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12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14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15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 엘리사가 가로되 '똥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똥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18 그 아이가 저으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 19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 20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 21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 22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 23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어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 24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아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 25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넬 여인이 있도다'
- 26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 27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 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 28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 29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 30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 31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 32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 33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 34 아이의 위에 올라 엮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엮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 35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엮드리니 아이가 일곱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 36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 37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앞에서 땅에 엮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 38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솔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 39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 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 40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 41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 42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이삭과 또 찰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 43 그 사환이 가로되 '어쩔이니까 이것을 일백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 44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5

1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천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2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리이러하더이다'

5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란 대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 나아만이 도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낮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

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
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5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
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
물을 받으소서

16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
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17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흘
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
리겠나이다

18 오직 한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
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
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
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때에 여호
와께서 이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
다

19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와 사심을 가
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 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서 취하리라 하고

21 나아만의 뒤를 쫓아 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음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22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
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에브
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
를 억제 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
을 아울러 두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25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6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 같이 되었더라

6

1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3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4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벌어진 것이니이다

6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 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7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8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10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 두번이 아닌지라

11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12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13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1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15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찌기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물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18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21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2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23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4 이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합분태 사분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26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28 또 가로되 '무슨 일이나'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30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베를 입었더라
 31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32 그 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 무리와 말썬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

1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말썬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2 그 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3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 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5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8 그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10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다

11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12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추린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13 그 신복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

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
 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14 저희가 병거 돌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
 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16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
 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이 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18 일찌기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
 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19 그 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
 를 밟으매 죽었더라

8

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
 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년 동안
 임하리라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
 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칠년을 우거하다가
 3 칠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
 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5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 할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
 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

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 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7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흑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8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9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사십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10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오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11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12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떼어차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13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4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오시리라 하더이다

15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오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7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삼십 이세라 예루살렘에서 팔년을 치리하니라

18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

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라
 20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21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22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23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4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십 이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26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이세라 예루살렘에서 일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희의 손녀더라
 27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28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29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르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9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4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중에 누가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6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11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한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12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13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14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15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

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
 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16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
 음이라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 왔더라
 17 이스라엘 망대에 파숫군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의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
 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나 묻게 하라
 18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
 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숫군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19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
 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20 파숫군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21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
 엘왕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
 이 있으랴
 23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24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
 니 살이 그 엄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25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
 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
 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
 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27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므깃도까지 도
 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28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29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십 일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
 었었더라
 30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32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34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 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35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36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
 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37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 같이 밭 면에 있으리
 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
 셧느니라

10

1 아합의 아들 칠십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
 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2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
 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
 르거든
 3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
 라
 4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
 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5 궁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대로 행하라 한지라

6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부치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칠십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칠십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8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9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못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10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헬리아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2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13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14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사십 이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5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8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
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19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
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
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
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
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궤계를 씌이라

20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21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
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지지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
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22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온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
지라

23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24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
가 팔십인을 밖에도둬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
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5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
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밤에 던지고

26 예후가 바알의 당에서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
져다가 불사르고

27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훼파하여 변소를 만들
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8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벤
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
하였더라

30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차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31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2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33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34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5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6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햇수는 이십팔년이더라

11

1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3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와 전에 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4 제 칠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와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5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중 삼분 일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6 삼분 일은 수르문에 있고 삼분 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7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중 두 대는 여호와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8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9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10 제사장이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12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무리가 막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3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17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18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훼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 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19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20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21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칠세였더라

12

1 예후의 칠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사십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6 요아스왕이 이십 삼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7 요아스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8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락하니라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와의 전 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와의 전에 가져 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10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11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13 여호와와 그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의 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14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와 그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5 또 그 은을 받아 일군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16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와 그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17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고로
 18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와 그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19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21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다라 저는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

1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이십 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 칠년을 치리하며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좃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발하시니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4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5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좃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7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오십과 병거 십승과 보병 일만 외에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8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 유다 왕 요아스의 삼십 칠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륙년을 치리하며

11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좃아 행하였더라

12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15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16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17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와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벧에서 치리이다'

18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19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류번을 칠 것이 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0 엘리사가 죽으매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
이 지경을 범한지라
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22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
엘을 학대하였으나
2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
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
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24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25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
을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

1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2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오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구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
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서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
으나
6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
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
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7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욥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8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9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0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11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1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1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14 또 여호와와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5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6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십 오년을 생존하였더라

18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0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21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
 을 삼으니 때에 나이 십 륙세라
 22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
 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23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십 오년에 이스라엘 왕 요
 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십 일
 년을 위에 있으며
 24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
 밋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스라엘 엘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베벨 아밧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
 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
 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8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
 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
 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
 되지 아니하였느냐
 29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십 칠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2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 륙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 이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
 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
 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6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 아사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 유다 왕 아사라의 삼십 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섯달을 치리하며
 9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
 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
 니한지라
 10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앞에서 쳐 죽
 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1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
 니라
 12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사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13 유다 왕 오시야 삼십 구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
 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14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
 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
 략에 기록되니라
 16 그 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딤사와 그 가운데 있
 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밴 부녀를
 갈랐더라
 17 유다 왕 아사라 삼십 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
 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십년을 치리하며
 18 여호와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
 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 앗수르 왕 불에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일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
 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
 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에 앓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21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
 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 므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
 하여 왕이 되니라
 23 유다 왕 아사랴 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
 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년을 치리하며
 24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
 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5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오십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26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27 유다 왕 아사랴 오십 이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
 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십년을 치리하며
 28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
 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베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
 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앓
 수르로 옮겼더라
 30 웃시야의 아들 요담 이십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
 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32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년에 유다 왕 웃시야
 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33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세라 예루살렘에서 십륙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
 되니라
 34 요담이 그 부친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
 의 윗문을 건축 하니라
 36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
 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7 그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38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

1 르말랴의 아들 베가 십 칠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세라 예루살렘에서 십륙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3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 이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 니라
 6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7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8 여호와와 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9 앗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10 아하스왕이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11 아하스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그대로 단을 만든지라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14 또 여호와와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와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
 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
 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불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16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17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못바다를 못소 위에서 내려다가 물
 판 위에 두며
 18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
 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와 전에
 옮겨 세웠더라
 19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

1 유다 왕 아하스 십 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
 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년을 치리하며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
 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
 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4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
 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5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삼년을 에워쌌더라
 6 호세아 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
 슷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
 록 산당을 세우고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
 을 세우고
 11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
 케 하였으며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
 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
 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
 하라 하셨으나
 14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
 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 같이 하여
 15 여호와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좃쳐 허망하
 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시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
 을 본받아
 16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
 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
 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
 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시라 그 앞에서 제하시
 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9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1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2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23 여호와께서 그 중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24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25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들을 죽인지라

26 그러므로 흑이 앗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7 앗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 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28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벨엘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29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2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4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
 니하는도다
 35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
 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
 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
 릴 것이며
 37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
 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38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
 치 말고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
 하였느니라
 41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
 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의 행한 것을 좃아 오들
 까지 그대로 하니라

18

1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구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
 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
 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
 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 5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 6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 7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 8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 9 히스기야 왕 사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칠년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 10 삼년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육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구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 11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 12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들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 13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 14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 15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 16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 17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위못 수도 곁 곧 세 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 18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썸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 19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앓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
 나
 20 네가 싸울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입
 에 붙은 말 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
 였느냐
 21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
 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찢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
 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22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과 제
 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23 이제 너는 내 주 앓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필을 추리라
 24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
 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듯하냐
 25 내가 어찌 여호와와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26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
 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27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
 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
 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28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
 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앓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 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
 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앓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
 도
 31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앓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

을 마시라
 32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33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 열국의 모든 신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6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37 이에 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19

1 히스기야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 랍사게가 그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 님을 험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7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립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9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10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앗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십시오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소서
 17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18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20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

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훼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뿔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에게 그리하였도다
 23 네가 사자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
 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24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
 급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25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26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
 나니 너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같으니라
 27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
 니
 28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29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삼년
 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0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
 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31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
 라 하셨나이다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
 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시라
 34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
 팔만 오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 앓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37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에게 살hat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4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겠고

6 내가 네 날을 십 오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앓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오니라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9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10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12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13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15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16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17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20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 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 하여 왕이 되니라

21

1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이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 오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5 또 여호와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
 들을 쌓고
 6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 열조
 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
 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
 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 내가 사마리아를 잔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
 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옹기 같이 예루살
 렘을 씻어 버릴지라
 14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15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
 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16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이 가득하게 하였더라
 17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
 산에 창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9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이세라 예루살렘에서 이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므술레멧이라 옷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20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22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23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4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25 아몬의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6 아몬이 옷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

1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3 요시야 왕 십 팔년에 왕이 므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4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와의 전에 드린은 곧 문 지키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5 여호와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6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7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와 그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10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12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13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불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책을 읽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진노가 크도다

14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돌재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15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16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 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8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19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23

1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 왕이 대(臺)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4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벨엘로 가져가게 하고

5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던라

8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운 여호수아의 대문 어구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던라

9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던라

10 왕이 또 히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11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중 나단멜렉의 집결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12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
 가 여호와와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빵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13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
 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의
 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
 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15 이스라엘로 범 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엘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러 하이를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되었다
 17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나 성
 을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엘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18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19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 호
 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엘에서 행
 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
 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1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대
 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 요시야 왕 십 팔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
 절을 지켰더라
 24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
 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

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케 한 그 모든 격노를 인함이라

2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28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므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30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31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삼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32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3 바로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립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일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34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아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35 여호아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능봉하였더라

36 여호아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이십 오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일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브다야의 딸이더라

37 여호아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

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명하신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4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5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 되지 아니하였느냐

6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우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라

8 여호야킨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라

9 여호야킨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 그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11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12 유다 왕 여호야킨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팔년이라

13 저가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와의 전의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으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일만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 저가 여호야קים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6 또 용사 칠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일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7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קים의 아자비 맛다니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18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일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19 시드기야가 여호야קים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 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

1 시드기야 구년 사월 십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2 성이 시드기야 왕 십 일년까지 에워싸였더니
 3 그 사월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4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결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5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6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립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7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십 구년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여호와와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1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12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3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 또 가마들과 부살들과 불집게들과 손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5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옹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16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17 그 한 기둥은 고가 십팔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삼 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18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19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왕의 시중 다섯 사람과 국민을 초시나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육십명이라
 20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1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2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23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좃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 좃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야에게 나아가매
 24 그달리야가 저희와 그 좃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로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25 칠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
 이 십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6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
 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27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삼십 칠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십 이월 이십 칠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29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
 에서 먹게 하였고
 30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
 토록 굶이지 아니하였더라

한국어 성경

The Holy Bible in Korean, 1910 translation

Public Domain

Language: 한국인 (Korean)

Contributor: 레널즈, 이승두, 김정삼

2024-11-05

PDF generated using Haiola and XeLaTeX on 18 Apr 2025 from source files
dated 5 Nov 2024

7611292f-ab99-5de2-9efb-8422f9365905